

범 죄 개 요





I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1.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¹⁾ 추이

가. 전체범죄²⁾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 2023년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613,754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144.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지난 10년 대비 16.5%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전체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 교통범죄³⁾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는 1,351,063건(전체범죄의 83.7% 비중)으로, 인구 10만명당 2,632.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4.1% 증가, 지난 10년 대비 0.6%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이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4년 1,118.7건에서 2023년 511.8건으로 지난 10년간 54.2%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전체범죄의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9.7%에서 2023년 16.3%로 13.4%p 감소하였다.

1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의미

2 전체범죄란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를 모두 포함한 범죄를 의미

3 교통범죄는 교통사고 범죄와 교통사고 이외의 기타 교통범죄로 구분, 교통사고 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이 포함되며, 기타 교통범죄에는 '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이 포함

표 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 제외한 전체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⁴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1,933,835	3,767.6	-	1,359,632	2,648.9	-
2015	2,020,731	3,921.5	4.1	1,423,258	2,762.0	4.3
2016	2,008,290	3,884.8	3.1	1,407,320	2,722.3	2.8
2017	1,824,876	3,524.4	-6.5	1,294,926	2,500.9	-5.6
2018	1,738,190	3,353.9	-11.0	1,304,840	2,517.7	-5.0
2019	1,767,684	3,409.2	-9.5	1,361,661	2,626.2	-0.9
2020	1,714,579	3,308.1	-12.2	1,337,162	2,579.9	-2.6
2021	1,531,705	2,966.2	-21.3	1,191,228	2,306.8	-12.9
2022	1,575,007	3,061.9	-18.7	1,301,262	2,529.7	-4.5
2023	1,613,754	3,144.2	-16.5	1,351,063	2,632.4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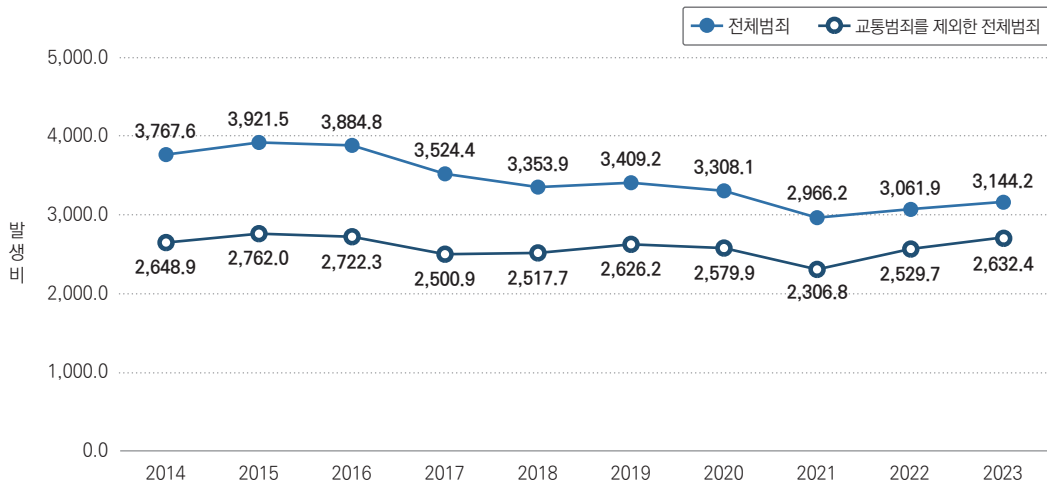


그림 1 전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4 증감률은 기준년도인 2014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

나.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1) 형법범죄⁵와 특별법범죄

- 2023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1,026,799건으로, 인구 10만명당 2,000.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형법범죄 발생비는 2022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1.0%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큰 변동은 없이 증감을 반복하다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 2023년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는 586,955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143.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특별법범죄 발생비는 2022년 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6.0%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특별법범죄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다 2023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 최근 10년간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5 형법범죄에는 형법 각 장의 범죄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이 포함('일러두기'의 범죄분류체계 참조)

표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형법범죄			특별법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1,016,209	1,979.8	-	917,626	1,787.8	-
2015	1,047,761	2,033.3	2.7	972,970	1,888.2	5.6
2016	1,005,689	1,945.4	-1.7	1,002,601	1,939.4	8.5
2017	958,865	1,851.9	-6.5	866,011	1,672.5	-6.4
2018	988,398	1,907.1	-3.7	749,792	1,446.7	-19.1
2019	1,041,395	2,008.5	1.4	726,289	1,400.8	-21.6
2020	1,044,438	2,015.2	1.8	670,141	1,293.0	-27.7
2021	917,787	1,777.3	-10.2	613,918	1,188.9	-33.5
2022	1,003,883	1,951.6	-1.4	571,124	1,110.3	-37.9
2023	1,026,799	2,000.6	1.0	586,955	1,143.6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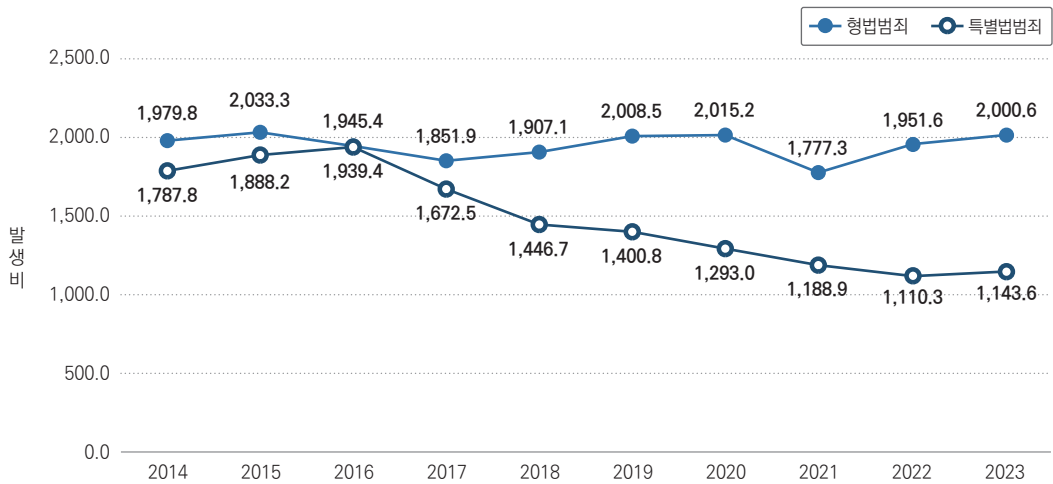


그림 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2) 주요 형법범죄⁶

- 2023년 재산범죄의 발생건수는 669,303건으로, 인구 10만명당 1,304.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대비 8.5%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재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였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 2023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건수는 41,287건으로, 인구 10만명당 80.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5.8% 감소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은 21.0%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2023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건수는 182,621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55.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1.8%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이후 2022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 재산범죄의 발생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8.5%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도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21.8%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지난 10년간 21.0%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6 주요 형법범죄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부록 1> 형법범죄 분류체계 참조

표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617,119	1,202.3	-	34,126	66.5	-	233,655	455.2	-
2015	622,126	1,207.3	0.4	35,139	68.2	2.6	248,707	482.7	6.0
2016	573,445	1,109.3	-7.7	32,963	63.8	-4.1	251,889	487.2	7.0
2017	542,336	1,047.4	-12.9	36,030	69.6	4.7	238,789	461.2	1.3
2018	576,937	1,113.2	-7.4	35,272	68.1	2.4	233,392	450.3	-1.1
2019	627,430	1,210.1	0.6	35,066	67.6	1.7	232,316	448.1	-1.6
2020	659,058	1,271.6	5.8	32,812	63.3	-4.8	210,241	405.6	-10.9
2021	575,332	1,114.1	-7.3	35,126	68.0	2.3	180,460	349.5	-23.2
2022	634,864	1,234.2	2.7	43,927	85.4	28.4	190,870	371.1	-18.5
2023	669,303	1,304.0	8.5	41,287	80.4	21.0	182,621	355.8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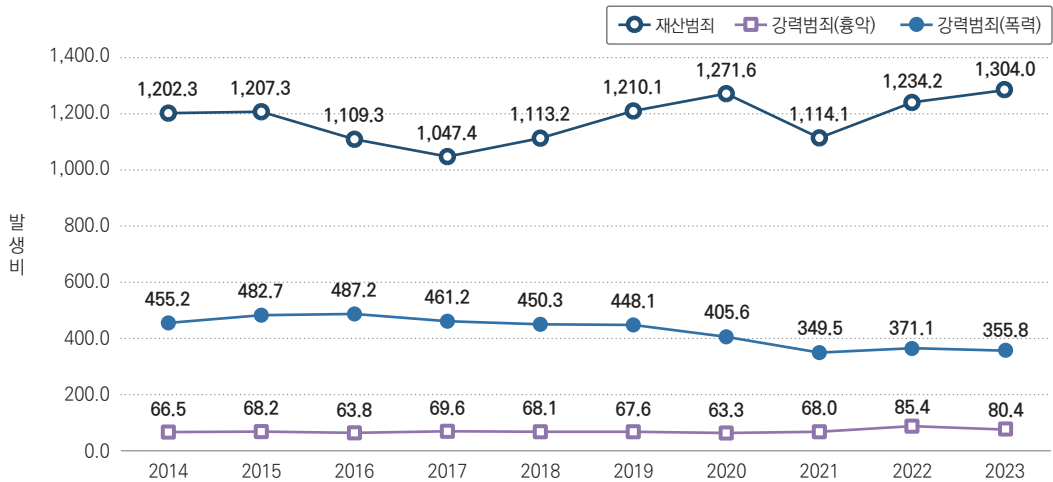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3) 주요 재산범죄

- 2023년 절도범죄의 발생건수는 189,942건, 인구 10만명당 370.1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절도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28.8%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절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 2023년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354,055건, 인구 10만명당 689.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7.7% 증가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45.1%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감소 후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절도			사기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266,784	519.8	-	244,008	475.4	-
2015	246,424	478.2	-8.0	257,620	499.9	5.2
2016	203,573	393.8	-24.2	250,600	484.8	2.0
2017	184,355	356.0	-31.5	241,642	466.7	-1.8
2018	177,458	342.4	-34.1	278,566	537.5	13.1
2019	187,629	361.9	-30.4	313,593	604.8	27.2
2020	173,650	335.0	-35.5	354,154	683.3	43.7
2021	166,782	323.0	-37.9	297,981	577.0	21.4
2022	182,720	355.2	-31.7	329,358	640.3	34.7
2023	189,942	370.1	-28.8	354,055	689.8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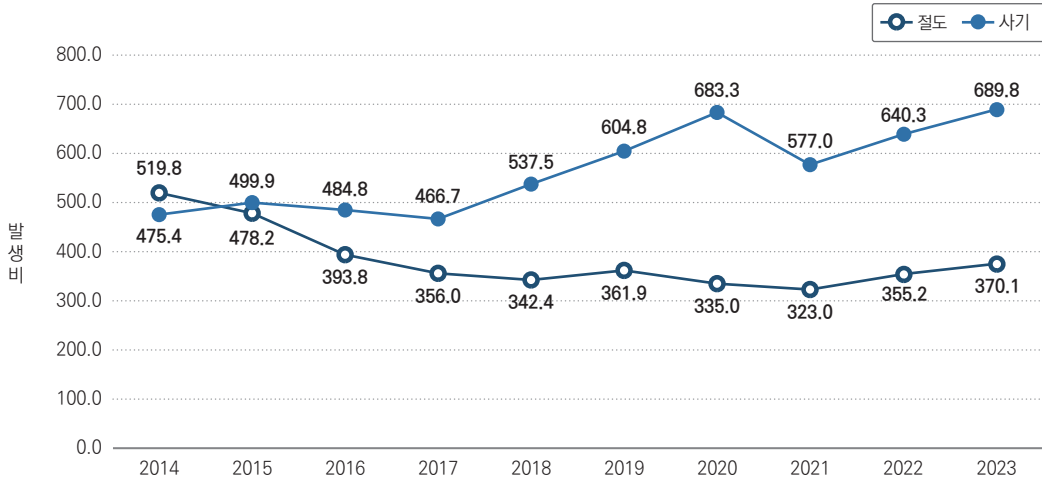


그림 4 주요 재산범죄 유형별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4) 주요 강력범죄

가) 살인범죄

- 2023년 살인범죄의 발생건수는 801건, 인구 10만명당 1.6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살인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8.8%(0.2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14.6%(0.2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 살인범죄에는 실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미수, 예비, 음모, 방조 등과 같은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범죄를 기수범죄와 미수 등의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3년에는 전체 801건 중 살인 기수범죄가 292건(36.5%)이며, 나머지 509건(63.5%)은 살인 미수 등의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까지 증감을 반복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살인 미수 등 범죄의 발생비는 살인 기수범죄의 발생비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5 살인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살인(전체)			살인(기수)		살인(미수 등)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14	938	1.8	-	366	0.7	572	1.1
2015	958	1.9	1.7	359	0.7	599	1.2
2016	948	1.8	0.3	344	0.7	604	1.2
2017	858	1.7	-9.3	287	0.6	571	1.1
2018	849	1.6	-10.4	326	0.6	523	1.0
2019	847	1.6	-10.6	323	0.6	524	1.0
2020	805	1.6	-15.0	339	0.7	466	0.9
2021	692	1.3	-26.7	284	0.5	408	0.8
2022	738	1.4	-21.5	293	0.6	445	0.9
2023	801	1.6	-14.6	292	0.6	50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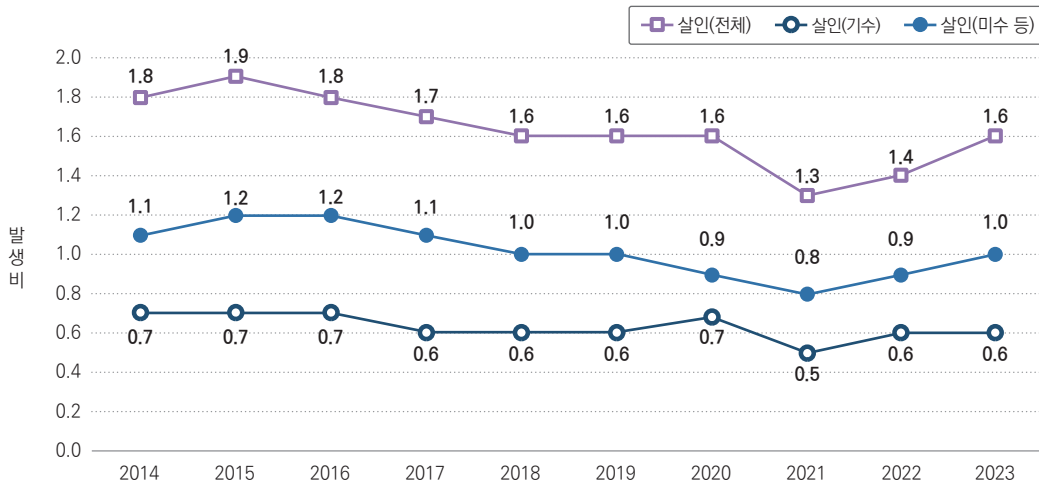


그림 5 살인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나) 강도와 방화범죄

- 2023년 강도범죄의 발생건수는 599건, 인구 10만명당 1.2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강도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12.8%(0.2건)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63.0%(2.0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강도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강도 범죄의 발생비는 형법범죄 주요 유형 중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2023년 방화범죄의 발생건수는 1,189건, 인구 10만명당 2.3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2.6%(0.1건)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0.3%(1.0건)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을 제외하고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증가 후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표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강도			방화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1,618	3.2	-	1,707	3.3	-
2015	1,472	2.9	-9.4	1,646	3.2	-4.0
2016	1,181	2.3	-27.5	1,477	2.9	-14.1
2017	990	1.9	-39.3	1,358	2.6	-21.1
2018	841	1.6	-48.5	1,478	2.9	-14.2
2019	845	1.6	-48.3	1,345	2.6	-22.0
2020	692	1.3	-57.6	1,210	2.3	-29.8
2021	511	1.0	-68.6	1,025	2.0	-40.3
2022	532	1.0	-67.2	1,224	2.4	-28.5
2023	599	1.2	-63.0	1,189	2.3	-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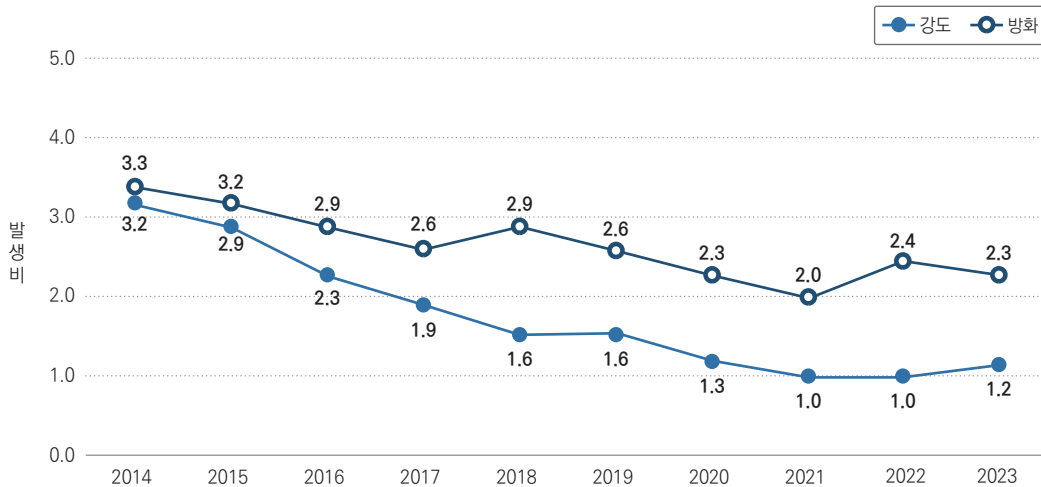


그림 6 강도와 방화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다) 성폭력범죄

- 2023년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는 38,698건, 인구 10만명당 75.4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6.4%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에는 29.6%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증감을 반복하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 강력범죄(흉악) 중 살인, 강도, 방화범죄의 발생비는 지난 10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성폭력범죄의 발생비는 약 1.3배 증가하였다. 강력범죄(흉악) 발생건수 중 성폭력범죄의 비중은 2014년 87.5%에서 2023년 93.7%로 6.2%p 높아졌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7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29,863	58.2	-
2015	31,063	60.3	3.6
2016	29,357	56.8	-2.4
2017	32,824	63.4	9.0
2018	32,104	61.9	6.5
2019	32,029	61.8	6.2
2020	30,105	58.1	-0.2
2021	32,898	63.7	9.5
2022	41,433	80.5	38.4
2023	38,698	75.4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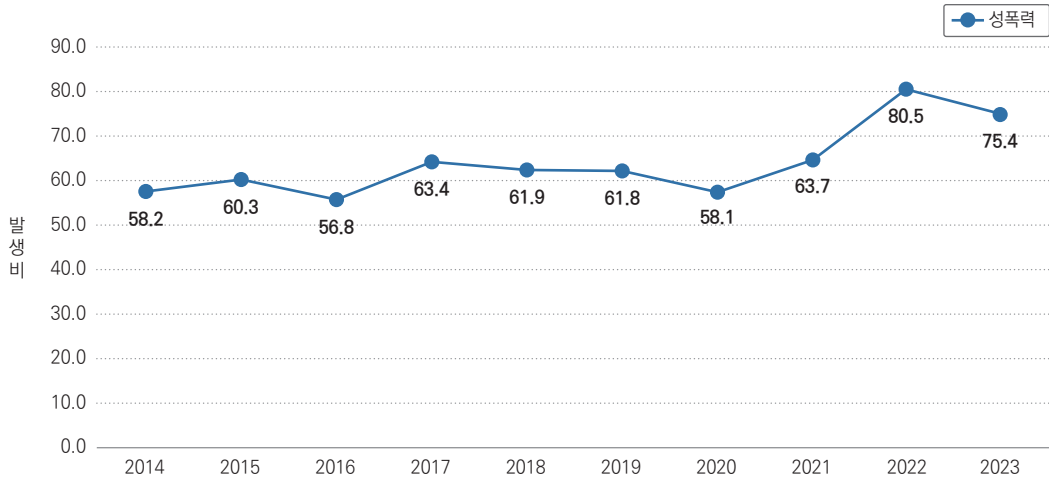


그림 7 성폭력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 성폭력범죄를 12개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여 발생건수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강간은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하여 15.0%를 보였다. 강제추행의 구성비는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39.6%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전체 성폭력범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강간 등 상해/치상은 2014년 2.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2%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구성비는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14.8%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강간등	강간등살인/치사	강간등상해/치상	특수강도강간등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계
2014	5,092 (17.1)	12,849 (43.0)	622 (2.1)	8 (0.0)	872 (2.9)	123 (0.4)	6,735 (22.6)	470 (1.6)	1,254 (4.2)	1,838 (6.2)	-	-	29,863
2015	5,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	-	31,063
2016	5,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	-	29,357
2017	5,555 (16.9)	15,981 (48.7)	144 (0.4)	7 (0.0)	716 (2.2)	34 (0.1)	6,615 (20.2)	422 (1.3)	1,265 (3.9)	2,085 (6.4)	-	-	32,824
2018	5,826 (18.1)	15,672 (48.8)	182 (0.6)	8 (0.0)	655 (2.0)	43 (0.1)	6,085 (19.0)	646 (2.0)	1,378 (4.3)	1,609 (5.0)	-	-	32,104
2019	5,845 (18.2)	15,766 (49.2)	157 (0.5)	2 (0.0)	653 (2.0)	42 (0.1)	5,893 (18.4)	685 (2.1)	1,454 (4.5)	1,532 (4.8)	-	-	32,029
2020	5,825 (19.3)	14,486 (48.1)	102 (0.3)	9 (0.0)	574 (1.9)	274 (0.9)	5,005 (16.6)	697 (2.3)	2,070 (6.9)	906 (3.0)	32 (0.1)	125 (0.4)	30,105
2021	5,737 (17.4)	13,156 (40.0)	74 (0.2)	4 (0.0)	558 (1.7)	315 (1.0)	5,686 (17.3)	548 (1.7)	5,079 (15.4)	923 (2.8)	260 (0.8)	558 (1.7)	32,898
2022	6,177 (14.9)	14,908 (36.0)	100 (0.2)	4 (0.0)	516 (1.2)	254 (0.6)	6,082 (14.7)	622 (1.5)	10,605 (25.6)	1,150 (2.8)	171 (0.4)	844 (2.0)	41,433
2023	5,808 (15.0)	15,334 (39.6)	87 (0.2)	6 (0.0)	453 (1.2)	150 (0.4)	5,718 (14.8)	762 (2.0)	8,026 (20.7)	1,187 (3.1)	173 (0.4)	994 (2.6)	38,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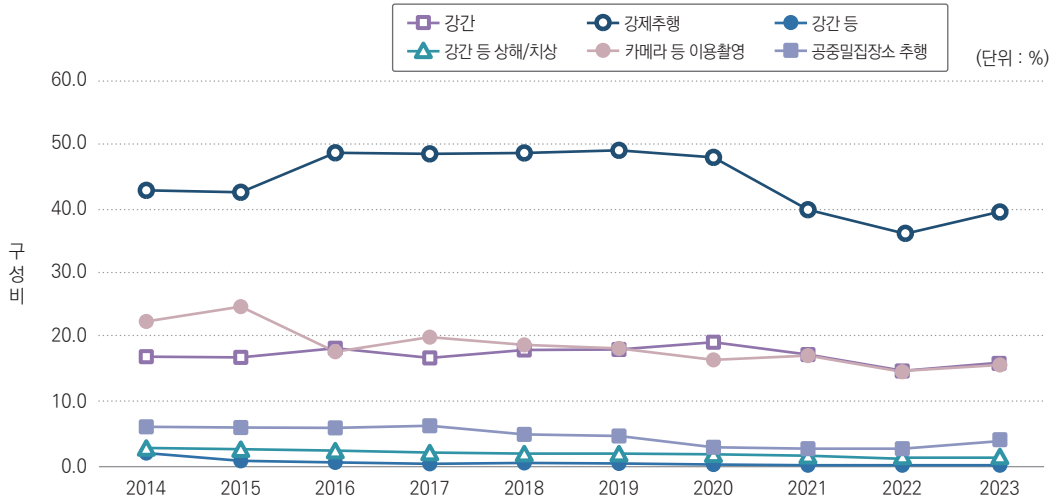


그림 8 성폭력범죄 주요 유형별 구성비 추이(2014년~2023년)

라) 폭행/상해범죄⁷⁾

- 2023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는 149,380건, 인구 10만명당 291.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6.3%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30.4%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였고, 이후 2022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2014	214,605	418.1	-
2015	226,543	439.6	5.2
2016	228,710	442.4	5.8
2017	215,717	416.6	-0.4
2018	208,935	403.1	-3.6
2019	203,074	391.7	-6.3
2020	180,604	348.5	-16.7
2021	151,586	293.6	-29.8
2022	159,741	310.5	-25.7
2023	149,380	291.0	-30.4

7 폭행/상해범죄는 형법범죄 중 폭행과 상해범죄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중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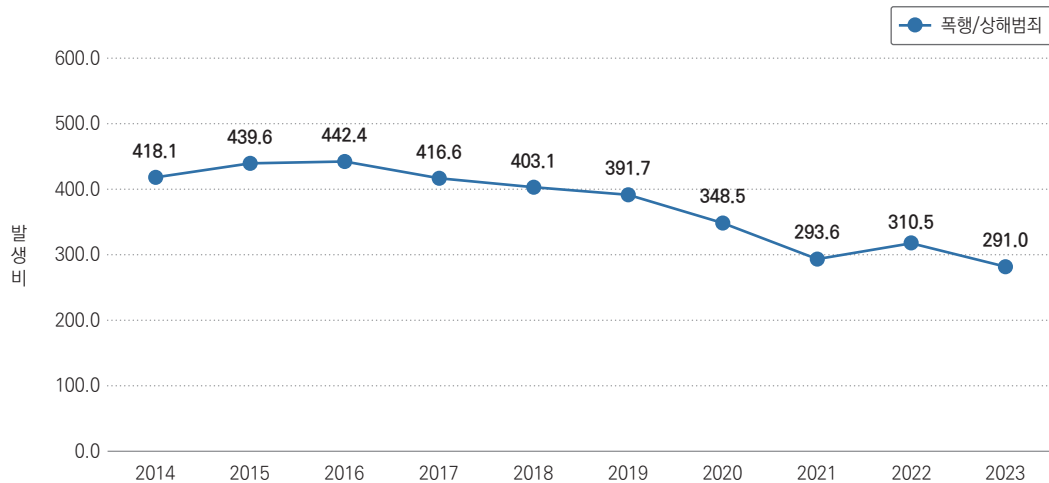


그림 9 폭행/상해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5) 교통범죄⁸

- 2023년 교통범죄의 발생건수는 262,691건, 인구 10만명당 511.8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22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며, 지난 10년 동안 54.2%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01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1,933,835건)에서 교통범죄(574,203건)가 차지하는 비중은 29.7%였으나, 2023년에는 16.3%로 13.4%p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교통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범죄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통범죄를 교통사고 범죄와 기타 교통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통사고 범죄의 발생비는 2014년 582.3건에서 2023년 177.0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69.6% 감소하였다. 기타 교통범죄는 2014년 536.4건에서 2023년 334.8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7.6% 감소하였다.

8 교통범죄 집계기준에 대해서는 [각주 3] 참조

표 10 교통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건, 발생비, %)

연도	교통범죄(전체)			교통사고 범죄		기타 교통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증감률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2014	574,203	1,118.7	-	298,867	582.3	275,336	536.4
2015	597,473	1,159.5	3.6	320,249	621.5	277,224	538.0
2016	600,970	1,162.5	3.9	307,104	594.1	293,866	568.4
2017	529,950	1,023.5	-8.5	252,383	487.4	277,567	536.1
2018	433,350	836.2	-25.3	223,608	431.5	209,742	404.7
2019	406,023	783.1	-30.0	226,254	436.4	179,769	346.7
2020	377,417	728.2	-34.9	212,593	410.2	164,824	318.0
2021	340,477	659.3	-41.1	178,614	345.9	161,863	313.5
2022	273,745	532.2	-52.4	97,615	189.8	176,130	342.4
2023	262,691	511.8	-54.2	90,835	177.0	171,856	3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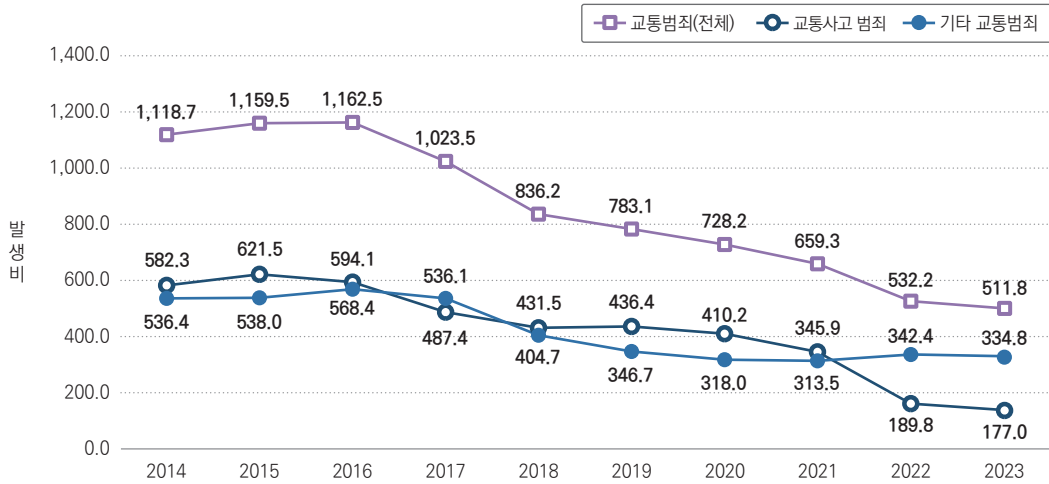


그림 10 교통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다. 연령별 범죄발생비 추이

1) 전체범죄

- 전체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41세~50세 범죄자의 발생비가 인구 10만명당 3,330.0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1세~60세(3,325.7건), 31세~40세(3,324.5건), 19세~30세(3,199.7건), 61세 이상(1,906.4건), 18세 이하(862.1건)의 순이었다.
- 전체범죄의 연령별 발생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동안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범죄자의 발생비는 감소한 반면에, 소년범죄자(18세 이하)의 발생비는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41세~50세의 발생비가 40.9%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소년범죄자(18세 이하)의 발생비는 9.7% 증가하였다.

표 11 전체범죄 범죄자 연령별 발생비⁹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발생비)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2014	786.0	3,826.6	4,761.2	5,631.3	5,235.0	1,939.1
2015	737.4	4,043.1	4,816.7	5,560.1	5,315.3	2,073.3
2016	810.6	4,242.9	5,126.8	5,637.6	5,473.5	2,215.4
2017	799.5	3,949.2	4,588.8	5,023.8	5,059.5	2,173.5
2018	750.3	3,639.9	4,193.2	4,607.0	4,813.3	2,183.9
2019	780.5	3,681.2	4,138.8	4,588.1	4,818.9	2,340.2
2020	785.9	3,553.9	3,788.8	4,089.1	4,413.4	2,218.9
2021	677.2	3,129.6	3,212.2	3,351.6	3,563.2	1,911.3
2022	788.0	3,359.5	3,325.5	3,329.6	3,374.1	1,828.3
2023	862.1	3,199.7	3,324.5	3,330.0	3,325.7	1,906.4

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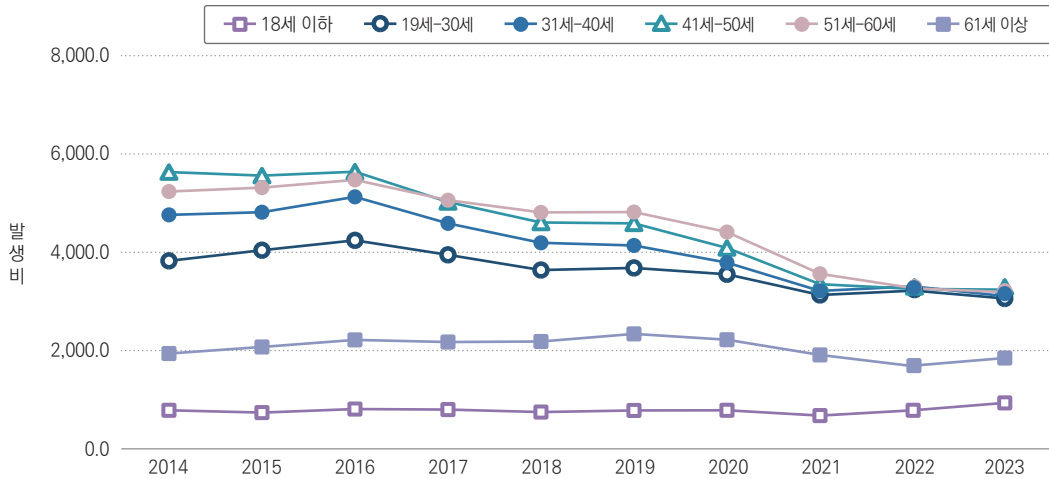


그림 11 전체범죄의 범주별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2) 소년범죄

- 소년 재산범죄¹⁰의 발생비는 2014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67.4건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377.6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는 2.8% 증가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4년 소년인구 10만명당 32.0건에서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64.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102.3% 증가하였다.
-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4년 소년인구 10만명당 196.0건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203.9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4.0% 증가하였다.
-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4년 소년인구 10만명당 93.7건에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에는 100.8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간 소년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7.5% 증가하였다.

10 「2019 범죄분석」 이전의 소년범죄자는 10세~18세를 의미하였으나 「2019 범죄분석」부터 연령집계 시 14세 미만 피의자를 제외하고 작성함에 따라 제시된 2018년부터 소년 재산범죄는 소년범죄자(14세~18세)가 범한 재산범죄를 의미, 이하 소년 강력범죄(흉악/폭력), 소년 교통범죄도 동일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2023년 강력범죄(흉악)의 소년범죄 발생비는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가장 낮았지만, 다른 범죄군에 비하여 지난 10년간 증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¹¹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4	367.4	-	32.0	-	196.0	-	93.7	-
2015	332.9	-9.4	28.2	-12.0	181.4	-7.5	89.4	-4.7
2016	352.9	-3.9	35.7	11.5	207.7	6.0	99.4	6.0
2017	319.3	-13.1	38.1	19.0	231.2	18.0	105.8	12.8
2018	300.6	-18.2	39.8	24.4	224.0	14.3	86.7	-7.5
2019	327.6	-10.8	43.2	35.0	219.4	11.9	88.0	-6.1
2020	351.7	-4.3	38.2	19.4	179.7	-8.3	100.7	7.5
2021	273.1	-25.7	45.2	41.3	170.7	-12.9	92.5	-1.4
2022	315.3	-14.2	63.2	97.5	199.2	1.6	97.7	4.2
2023	377.6	2.8	64.7	102.3	203.9	4.0	100.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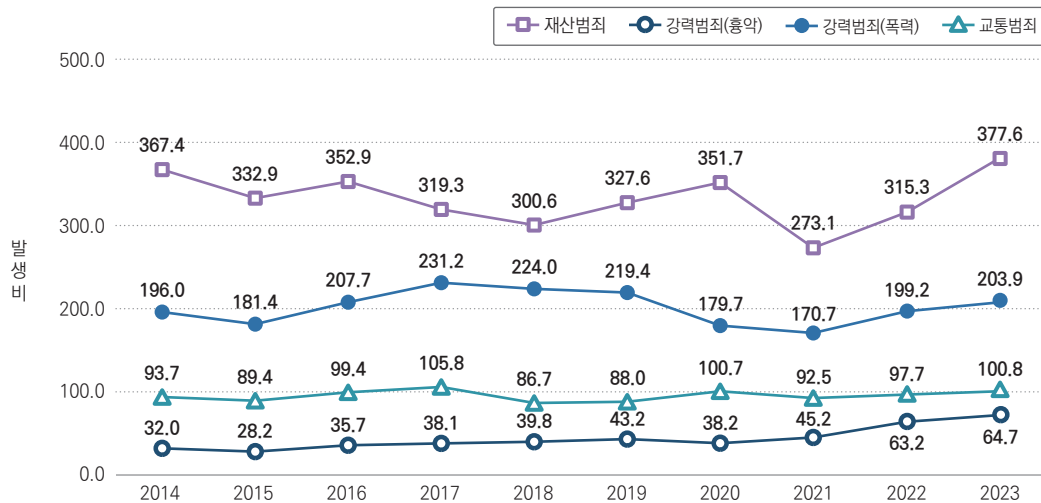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11 소년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18세 이하 인원수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임을 유의

3) 고령자범죄

- 고령자¹²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4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315.0건에서 2020년 489.8건까지 계속 증가하다 2021년 감소하고 2022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469.5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49.0%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4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19.5건에서 2019년 29.3건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26.7건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36.7% 증가하였다.
-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4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216.9건에서 2019년 263.8건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243.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12.1% 증가하였다.
-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4년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444.1건에서 2016년 534.0건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3년에는 296.0건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고령자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33.4% 감소하였다.
- 4가지 범죄군 중에서 고령자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 다음은 교통범죄,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강력범죄(흉악)은 4가지 범죄군 중에서 발생비가 가장 낮았지만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3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최근 고령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2014년 6,520,607명에서 2023년 9,730,411명으로 49.2%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12 만 65세 이상의 피의자



표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4	315.0	-	19.5	-	216.9	-	444.1	-
2015	340.0	7.9	21.6	10.6	240.3	10.8	507.2	14.2
2016	377.4	19.8	23.4	19.9	249.9	15.2	534.0	20.2
2017	395.4	25.5	27.0	38.1	241.8	11.5	502.6	13.2
2018	429.0	53.4	26.5	101.3	253.2	25.9	488.3	55.6
2019	479.9	66.4	29.3	97.9	263.8	31.8	512.5	51.2
2020	489.8	86.2	26.2	118.5	250.2	37.3	481.3	58.7
2021	436.3	90.0	24.4	95.9	227.0	30.3	418.4	49.0
2022	476.3	51.2	26.9	37.6	237.6	9.6	288.3	-35.1
2023	469.5	49.0	26.7	36.7	243.1	12.1	296.0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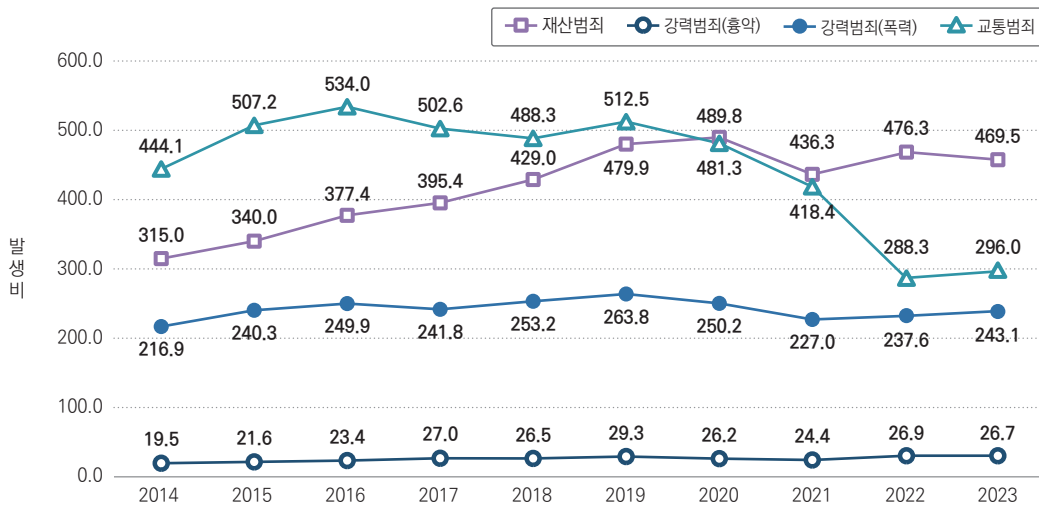


그림 13 주요 범죄군별 고령자범죄의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라. 지역별¹³ 범죄발생비 추이

- 2023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4,294.1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라남도 3,761.0건, 부산광역시 3,647.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1,713.0건이었으며, 그 다음은 충청북도(2,890.8건), 경기도(2,96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범죄에 대한 발생비는 16.5% 감소하였으며, 모든 시·도별 발생비 또한 10년 전 대비하여 감소하였다.

표 14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특별시	3,853.7	3,856.3	3,753.3	3,575.7	3,494.8	3,499.8	3,292.4	2,890.1	3,134.2	3,146.4
부산광역시	4,203.7	4,453.1	4,117.1	3,750.0	3,667.9	3,770.7	3,764.0	3,389.4	3,560.5	3,647.0
대구광역시	4,149.9	4,330.2	3,771.8	3,324.2	3,228.9	3,400.5	3,274.2	3,032.6	3,020.1	2,998.7
인천광역시	3,578.2	3,767.5	3,723.3	3,443.3	3,201.9	3,425.4	3,273.7	2,897.6	3,072.9	3,201.4
광주광역시	4,823.0	4,560.3	4,107.8	3,731.9	3,510.0	3,627.1	3,439.1	3,094.5	3,002.2	3,262.7
대전광역시	3,294.5	3,436.5	3,413.7	3,352.2	3,234.0	3,249.7	3,207.9	2,886.6	3,156.8	3,121.0
울산광역시	3,900.1	2,915.4	2,526.6	2,279.4	2,191.3	2,248.6	2,192.8	2,091.9	1,600.5	1,713.0
경기도	3,584.0	3,776.6	4,113.3	3,572.3	3,287.8	3,274.2	3,198.7	2,860.2	2,878.1	2,968.3
강원도	3,806.9	4,081.5	4,177.2	3,799.7	3,402.0	3,457.0	3,340.9	4,174.3	2,996.3	3,174.2
충청북도	3,195.2	3,679.9	3,880.2	3,571.4	3,355.3	3,362.5	3,226.1	2,943.5	2,966.9	2,890.8
충청남도	3,911.8	3,753.7	3,542.7	3,287.4	3,308.3	3,251.1	3,169.3	2,787.3	2,981.5	3,121.2
전라북도	3,349.8	3,513.2	3,346.5	3,086.3	3,067.9	3,189.4	3,115.7	2,943.0	3,036.7	3,031.2
전라남도	3,771.1	4,174.3	3,926.3	3,407.4	3,501.5	3,669.1	3,642.8	3,284.9	3,385.9	3,761.0
경상북도	3,536.5	3,691.0	3,562.8	3,308.3	3,189.3	3,304.7	3,174.6	2,866.8	3,036.1	3,095.6
경상남도	3,641.1	4,307.5	4,246.8	3,765.6	3,474.9	3,687.4	3,694.6	3,352.3	3,398.5	3,509.5
제주도	5,307.0	5,739.2	5,829.5	5,201.3	4,512.4	4,220.3	4,342.5	3,915.6	4,051.9	4,294.1

13 지역은 16개 시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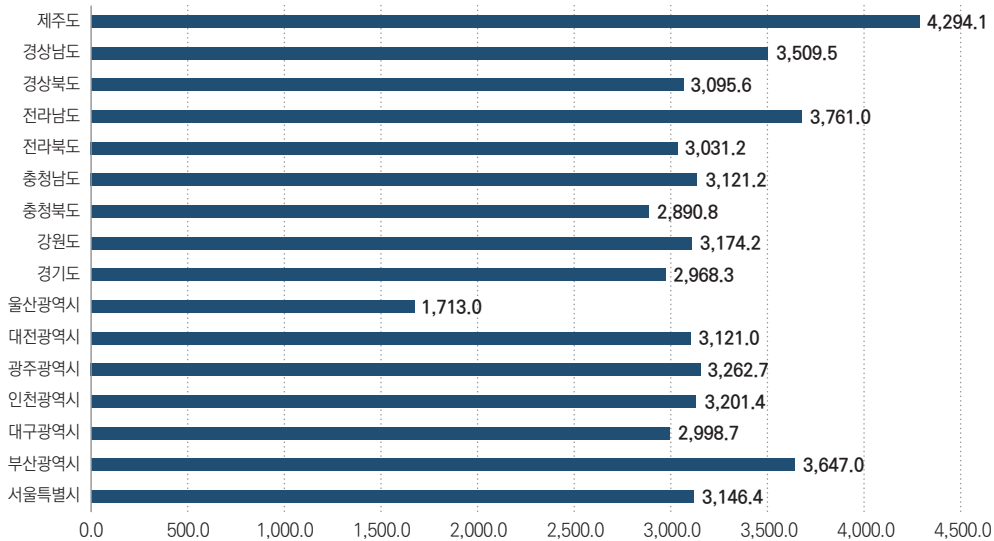


그림 14 2023년 전체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 2023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2,883.1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부산광역시 2,404.0건, 대전광역시 2,22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발생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인구 10만명당 931.1건이며, 그 다음은 충청북도(1,785.5건), 전라남도(1,829.5건) 등의 순이었다.
- 지난 10년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는 형법범죄의 발생비가 증가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는 감소하였다.
- 제주도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고, 반대로 울산광역시는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발생비 모두 16개 시·도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표 15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발생비)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특별시	2,347.2	2,367.3	2,280.3	2,173.5	2,186.3	2,265.1	2,193.1	1,886.8	2,176.9	2,174.6
부산광역시	2,309.0	2,326.4	2,199.6	2,152.9	2,205.7	2,373.5	2,473.3	2,137.8	2,331.6	2,404.0
대구광역시	1,964.5	2,041.3	1,827.2	1,738.0	1,799.3	2,006.5	2,016.8	1,873.7	1,981.4	2,005.1
인천광역시	1,775.3	1,905.7	1,953.2	1,872.6	2,000.9	2,145.6	2,078.0	1,791.3	1,950.4	2,085.7
광주광역시	2,407.6	2,255.5	1,943.6	1,801.4	1,926.9	2,080.1	2,012.2	1,800.1	1,860.0	2,046.7
대전광역시	2,025.8	2,120.3	2,000.8	1,917.1	2,008.9	2,051.4	2,102.0	1,894.9	2,280.7	2,224.8
울산광역시	1,971.5	1,264.5	1,184.8	1,115.8	1,158.0	1,144.0	1,199.8	1,093.7	842.4	931.1
경기도	1,824.6	1,911.9	1,840.3	1,751.4	1,803.7	1,882.2	1,904.0	1,672.5	1,796.0	1,850.0
강원도	1,799.0	1,860.0	1,890.9	1,824.5	1,758.3	1,870.2	1,821.2	1,617.0	1,808.7	1,896.2
충청북도	1,638.3	1,852.5	1,800.9	1,732.5	1,791.2	1,901.1	1,872.2	1,711.2	1,886.2	1,785.5
충청남도	1,953.2	1,810.2	1,712.0	1,660.0	1,757.6	1,794.9	1,782.4	1,524.4	1,765.1	1,839.3
전라북도	1,654.8	1,826.3	1,702.0	1,566.0	1,678.7	1,736.3	1,800.6	1,683.6	1,823.2	1,893.9
전라남도	1,726.5	1,819.3	1,706.2	1,550.9	1,718.8	1,775.3	1,805.1	1,709.5	1,796.5	1,829.5
경상북도	1,629.2	1,669.6	1,661.7	1,578.9	1,614.0	1,818.5	1,804.9	1,575.7	1,859.1	1,910.1
경상남도	1,819.9	2,129.3	2,006.1	1,906.8	1,939.1	2,099.4	2,238.1	2,002.8	2,107.1	2,201.6
제주도	2,783.4	2,772.9	2,776.4	2,573.2	2,662.5	2,598.4	2,791.0	2,546.8	2,808.9	2,8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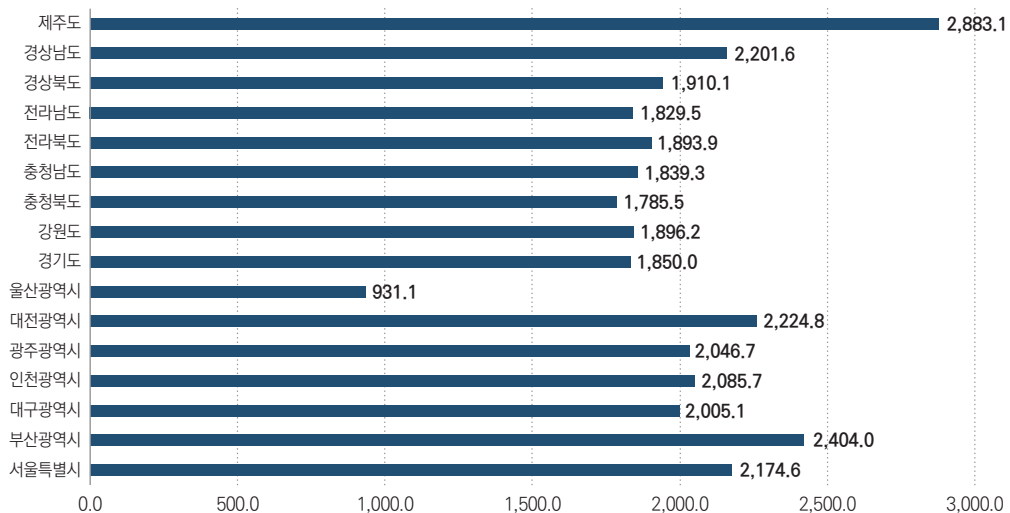


그림 15 2023년 형법범죄의 지역별 발생비



2. 범죄자 특성 추이

가. 성(性)

- 전체범죄의 경우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8.2%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1.1%로 지난 10년 동안 3.0%p 증가하였다.
- 재산범죄의 경우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4년 20.4%에서 2023년에는 24.2%로 지난 10년 동안 3.9%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흉악)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4년 3.3%에서 2023년에는 5.3%로 지난 10년 동안 2.0%p 증가하였다.
- 강력범죄(폭력)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4년 15.5%에서 2023년에는 19.1%로 지난 10년 동안 3.6%p 증가하였다.
-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2014년 14.4%에서 2023년에는 14.6%로 지난 10년 동안 0.2%p 증가하였다.
- 4가지 범죄군에서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였으며, 그 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모두 여성범죄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2014	18.2	20.4	3.3	15.5	14.4
2015	18.4	20.6	3.4	16.0	14.8
2016	18.2	21.1	3.4	16.3	14.8
2017	18.8	21.3	3.6	16.7	15.0
2018	19.7	22.3	4.1	17.1	16.1
2019	20.7	22.8	4.5	18.1	17.5
2020	20.7	22.4	4.9	17.9	17.2
2021	21.2	23.6	5.0	18.6	17.1
2022	21.1	24.2	4.7	18.7	14.3
2023	21.1	24.2	5.3	19.1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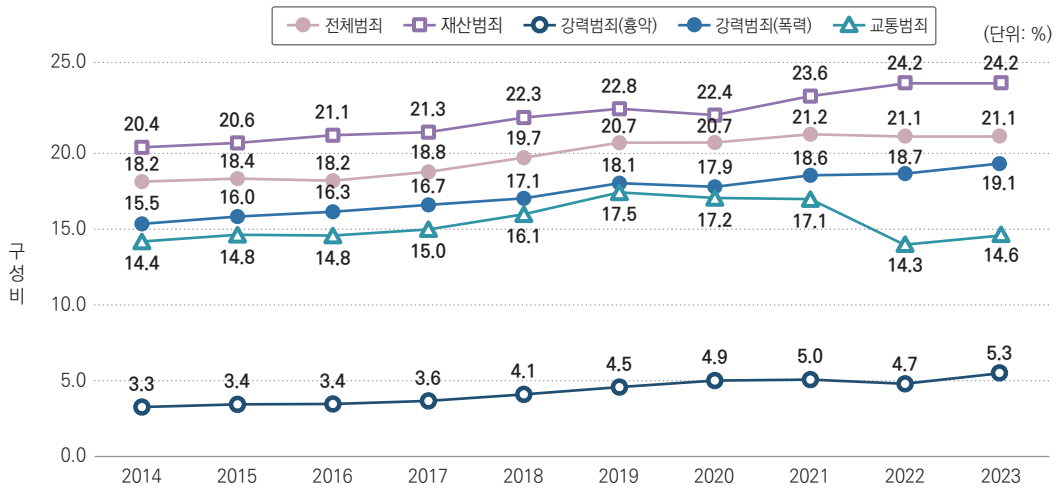


그림 16 주요 범죄군별 여성범죄자 구성비 추이(2014년~2023년)

나. 연령

- 2023년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0.4%), 19세~30세(18.3%), 61세 이상(18.1%), 31세~40세(16.8%), 18세 이하(5.0%)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8%p, 1.8%p, 9.1%p 증가하였다. 반면에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6.7%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17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명(%))

연도	18세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4	77,594 (4.2)	306,597 (16.6)	381,442 (20.6)	501,527 (27.1)	418,590 (22.6)	165,400 (8.9)	1,851,150
2015	71,035 (3.8)	324,976 (17.2)	376,218 (19.9)	496,000 (26.3)	435,511 (23.1)	185,219 (9.8)	1,888,959
2016	76,000 (3.9)	341,896 (17.3)	393,251 (19.9)	498,953 (25.3)	454,454 (23.0)	209,101 (10.6)	1,973,655
2017	72,759 (4.0)	318,645 (17.5)	345,590 (19.0)	441,295 (24.3)	424,809 (23.4)	215,139 (11.8)	1,818,237
2018	66,142 (3.9)	293,734 (17.2)	308,902 (18.1)	400,370 (23.5)	407,348 (23.9)	227,590 (13.4)	1,704,086
2019	66,247 (3.8)	297,445 (17.3)	300,789 (17.5)	388,899 (22.6)	413,869 (24.0)	256,250 (14.9)	1,723,499
2020	64,480 (4.0)	284,508 (17.8)	267,845 (16.8)	342,322 (21.4)	381,330 (23.9)	256,000 (16.0)	1,596,485
2021	54,017 (4.0)	245,699 (18.4)	220,350 (16.5)	276,978 (20.8)	306,270 (23.0)	231,130 (17.3)	1,334,444
2022	61,026 (4.6)	256,395 (19.2)	223,168 (16.8)	271,002 (20.3)	289,710 (21.7)	230,857 (17.3)	1,332,158
2023	66,758 (5.0)	244,197 (18.3)	223,101 (16.8)	271,034 (20.4)	285,548 (21.4)	240,713 (18.1)	1,331,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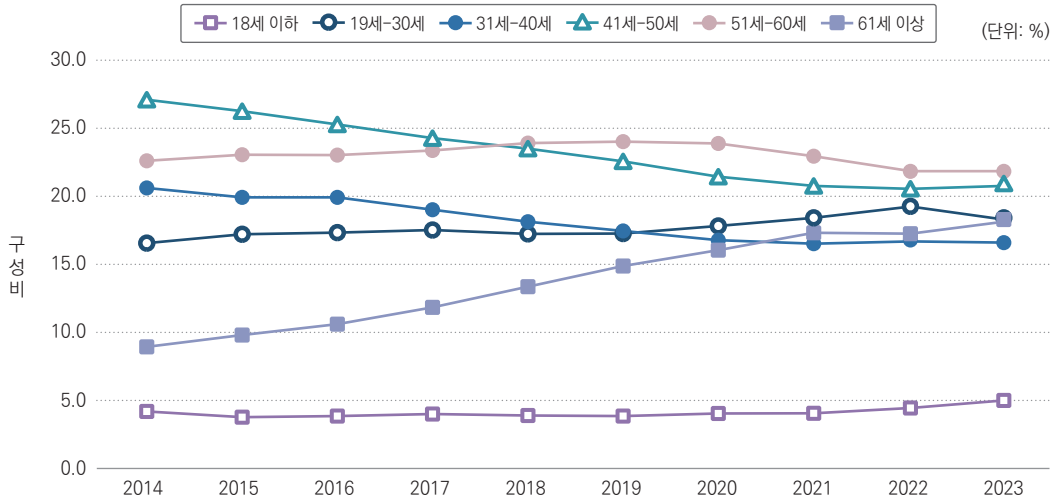


그림 17 전체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 2023년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19세~30세(19.8%), 61세 이상(19.1%), 41세~50세(18.3%), 31세~40세(15.1%), 18세 이하(7.7%)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p, 10.4%p 증가하였다. 반면에, 18세 이하,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7.6%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재산범죄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31세~40세, 41세~50세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8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명(%))

연도	18세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4	36,271 (9.0)	64,882 (16.1)	74,472 (18.4)	104,596 (25.9)	88,621 (21.9)	35,211 (8.7)	404,053
2015	32,068 (7.7)	74,537 (17.9)	75,125 (18.0)	103,263 (24.8)	92,454 (22.2)	39,168 (9.4)	416,615
2016	33,088 (7.9)	73,990 (17.6)	73,600 (17.5)	99,612 (23.7)	94,609 (22.5)	45,675 (10.9)	420,574
2017	29,056 (7.2)	72,242 (17.8)	68,547 (16.9)	93,332 (23.1)	92,089 (22.8)	49,502 (12.2)	404,768
2018	26,497 (6.4)	74,295 (17.8)	68,247 (16.4)	94,514 (22.7)	96,872 (23.2)	56,469 (13.5)	416,894
2019	27,809 (6.3)	78,871 (17.7)	70,193 (15.8)	96,831 (21.8)	104,407 (23.5)	66,384 (14.9)	444,495
2020	28,855 (6.6)	84,577 (19.5)	65,093 (15.0)	87,168 (20.1)	98,996 (22.8)	69,804 (16.1)	434,493
2021	21,785 (6.7)	66,852 (20.6)	45,413 (14.0)	59,078 (18.2)	69,765 (21.5)	61,244 (18.9)	324,137
2022	24,414 (7.1)	69,675 (20.3)	48,910 (14.3)	60,936 (17.8)	70,182 (20.5)	68,522 (20.0)	342,639
2023	28,367 (7.7)	73,201 (19.8)	55,681 (15.1)	67,441 (18.3)	73,662 (20.0)	70,645 (19.1)	368,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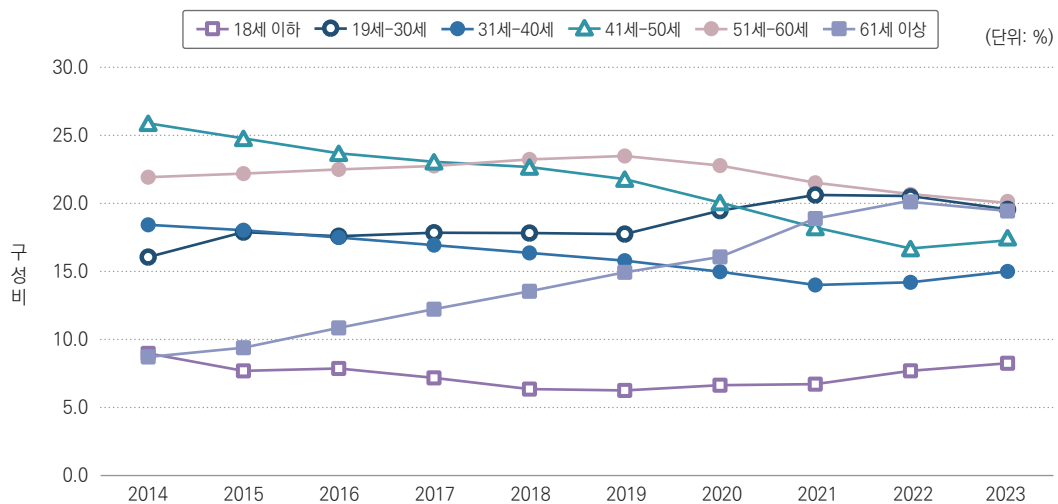


그림 18 재산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 2023년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9세~30세가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1세~40세(17.7%), 41세~50세(13.5%), 51세~60세(12.5%), 18세 이하(12.3%), 61세 이상(10.4%)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19세~3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p, 7.1%p, 3.7%p 증가하였다. 반면에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7.5%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표 19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명(%))

연도	18세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4	3,158 (10.6)	7,875 (26.5)	6,151 (20.7)	6,230 (21.0)	4,288 (14.4)	1,993 (6.7)	29,695
2015	2,713 (8.7)	8,414 (27.0)	6,689 (21.4)	6,382 (20.5)	4,671 (15.0)	2,321 (7.4)	31,190
2016	3,343 (10.1)	8,825 (26.6)	6,812 (20.5)	6,456 (19.4)	5,117 (15.4)	2,679 (8.1)	33,232
2017	3,463 (9.5)	10,157 (28.0)	7,281 (20.1)	6,704 (18.5)	5,516 (15.2)	3,169 (8.7)	36,290
2018	3,509 (9.7)	10,275 (28.5)	6,769 (18.8)	6,516 (18.1)	5,660 (15.7)	3,281 (9.1)	36,010
2019	3,665 (9.9)	10,713 (29.0)	6,888 (18.7)	6,255 (16.9)	5,655 (15.3)	3,750 (10.2)	36,926
2020	3,134 (9.0)	10,183 (29.2)	6,560 (18.8)	5,836 (16.7)	5,431 (15.6)	3,723 (10.7)	34,867
2021	3,606 (10.7)	10,772 (31.8)	6,214 (18.4)	5,131 (15.2)	4,640 (13.7)	3,465 (10.2)	33,828
2022	4,893 (11.9)	14,478 (35.1)	7,265 (17.6)	5,579 (13.5)	5,001 (12.1)	3,977 (9.7)	41,193
2023	4,861 (12.3)	13,318 (33.6)	7,006 (17.7)	5,362 (13.5)	4,972 (12.5)	4,113 (10.4)	39,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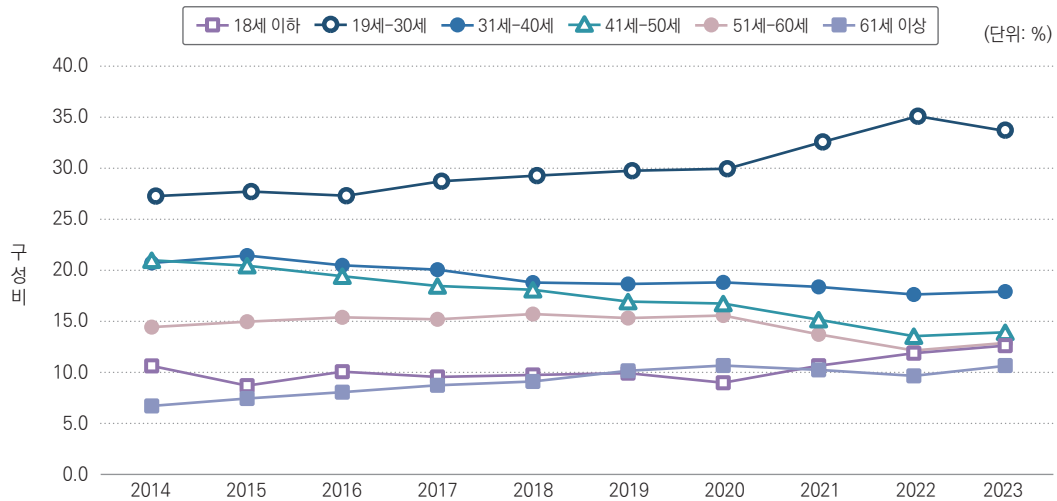


그림 19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 2023년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41세~50세(20.8%), 19세~30세(18.3%), 61세 이상(17.0%), 31세~40세(16.4%), 18세 이하(6.6%)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7%p, 9.6%p 증가하였다. 반면에,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4.7%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 10년간 추이에 따르면,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31세~40세, 41세~50세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20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4	19,352 (5.9)	66,930 (20.3)	65,792 (20.0)	83,952 (25.5)	68,775 (20.9)	24,581 (7.5)	329,382
2015	17,473 (5.1)	69,846 (20.5)	66,854 (19.7)	85,878 (25.2)	72,091 (21.2)	27,975 (8.2)	340,117
2016	19,476 (5.6)	71,847 (20.7)	67,700 (19.5)	83,495 (24.1)	73,172 (21.1)	31,172 (9.0)	346,862
2017	21,043 (6.4)	71,206 (21.6)	62,248 (18.9)	75,518 (22.9)	68,168 (20.7)	31,724 (9.6)	329,907
2018	19,742 (6.3)	65,263 (20.7)	57,691 (18.3)	70,394 (22.4)	67,275 (21.4)	34,408 (10.9)	314,773
2019	18,622 (6.0)	63,706 (20.5)	55,356 (17.9)	68,274 (22.0)	66,364 (21.4)	37,790 (12.2)	310,112
2020	14,744 (5.3)	56,781 (20.5)	47,761 (17.2)	59,608 (21.5)	61,219 (22.1)	37,248 (13.4)	277,361
2021	13,614 (5.9)	45,555 (19.8)	38,134 (16.6)	48,013 (20.9)	49,987 (21.7)	34,891 (15.2)	230,194
2022	15,429 (6.4)	48,217 (20.1)	39,660 (16.5)	49,258 (20.5)	50,062 (20.8)	37,745 (15.7)	240,371
2023	15,316 (6.6)	42,293 (18.3)	37,972 (16.4)	48,043 (20.8)	48,431 (20.9)	39,402 (17.0)	231,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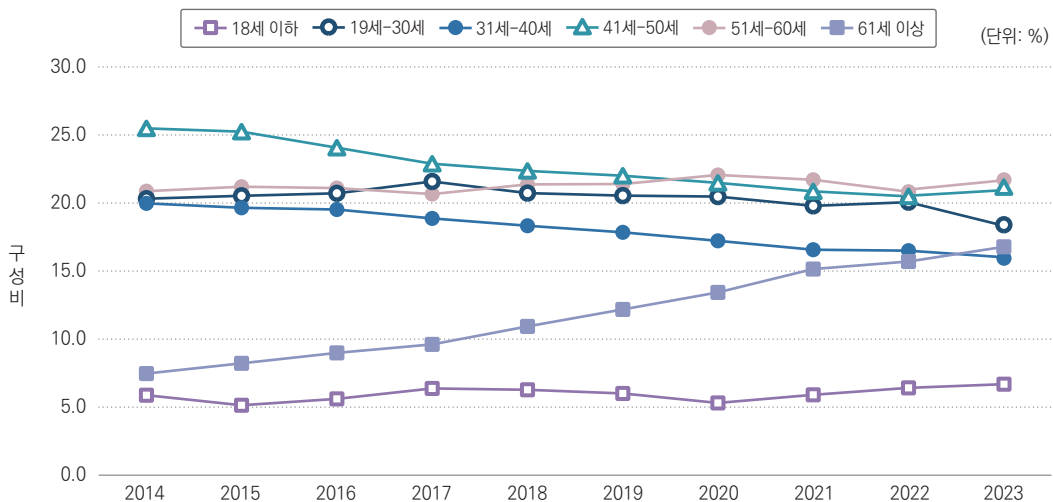


그림 20 강력범죄(폭력)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① 10년 동안 범죄발생 및 범죄자 특성 추이 - 범죄개요

- 2023년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1세~60세가 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41세~50세(21.3%), 61세 이상(18.7%), 31세~40세(18.6%), 19세~30세(16.6%), 18세 이하(2.9%) 순이다.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8세 이하, 51세~60세, 61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p, 0.7%p, 9.4%p 증가하였다. 반면에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였다. 특히, 감소된 연령층에서는 41세~50세의 비중이 5.8%p로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 지난 10년간 4가지 범죄군 모두 61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31세~40세, 41세~50세의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표 21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명(%))

연도	18세 이하	19세-30세	31세-40세	41세-50세	51세-60세	61세 이상	계
2014	9,254 (1.7)	89,780 (16.8)	126,995 (23.8)	144,582 (27.1)	113,215 (21.2)	49,726 (9.3)	533,552
2015	8,610 (1.6)	91,578 (16.7)	124,187 (22.6)	144,868 (26.4)	121,835 (22.2)	58,218 (10.6)	549,296
2016	9,319 (1.7)	93,396 (16.8)	123,352 (22.2)	141,683 (25.5)	123,346 (22.2)	64,232 (11.6)	555,328
2017	9,626 (1.9)	88,174 (17.2)	110,592 (21.6)	124,478 (24.3)	114,689 (22.4)	64,439 (12.6)	511,998
2018	7,641 (1.8)	74,166 (17.0)	89,557 (20.5)	101,039 (23.2)	99,847 (22.9)	64,087 (14.7)	436,337
2019	7,468 (1.8)	70,202 (17.2)	79,039 (19.4)	88,444 (21.7)	93,666 (22.9)	69,441 (17.0)	408,260
2020	8,265 (2.2)	66,918 (17.5)	69,966 (18.3)	79,703 (20.8)	89,251 (23.3)	68,529 (17.9)	382,632
2021	7,375 (2.2)	60,424 (17.8)	60,929 (17.9)	70,480 (20.8)	77,615 (22.9)	62,636 (18.5)	339,459
2022	7,565 (2.8)	49,066 (18.3)	49,856 (18.6)	56,706 (21.2)	58,410 (21.8)	45,881 (17.2)	267,484
2023	7,571 (2.9)	43,044 (16.6)	48,126 (18.6)	55,083 (21.3)	56,637 (21.9)	48,328 (18.7)	258,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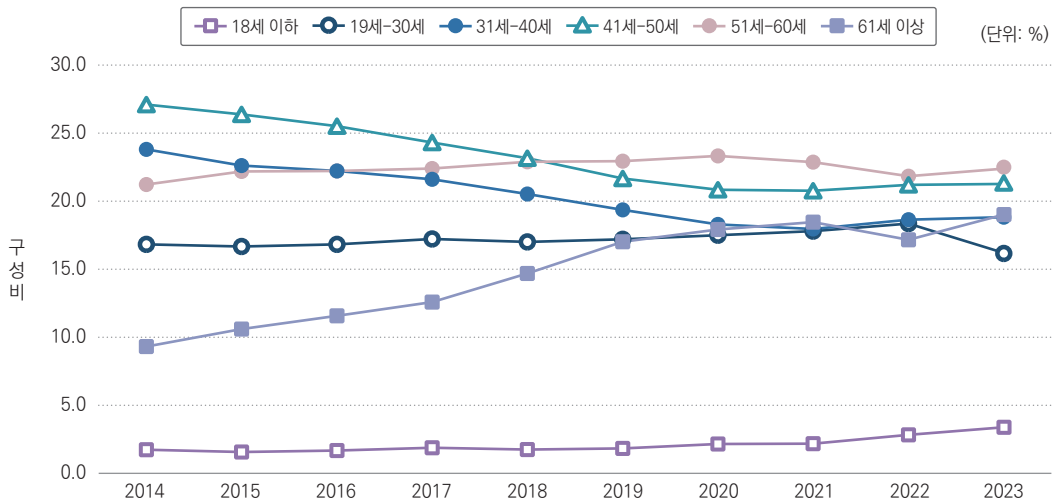


그림 21 교통범죄 범죄자의 연령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다. 전과

- 2023년 검거된 전체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606,895명으로 전체의 4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범죄자는 25.5%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과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범죄자가 2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비중은 2014년 45.3%에서 2023년 44.6%로 지난 10년동안 0.7%p 감소하였다. 전과가 없는 범죄자의 비중은 2023년 25.5%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비중이 2.9%p 감소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표 22 전체범죄의 전과 여부별 분포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명(%))

연도	전과없음	전과있음	미상	계
2014	411,192(21.9)	852,244(45.3)	616,112(32.8)	1,879,548
2015	416,301(21.4)	859,477(44.1)	673,188(34.5)	1,948,966
2016	437,154(21.6)	897,996(44.5)	685,046(33.9)	2,020,196
2017	398,684(21.4)	811,653(43.6)	651,459(35.0)	1,861,796
2018	362,702(20.7)	731,911(41.8)	654,846(37.4)	1,749,459
2019	366,305(20.9)	717,603(40.9)	670,900(38.2)	1,754,808
2020	336,625(20.6)	672,276(41.0)	629,486(38.4)	1,638,387
2021	313,196(23.0)	587,929(43.2)	458,827(33.7)	1,359,952
2022	339,676(25.0)	609,426(44.8)	410,287(30.2)	1,359,389
2023	346,651(25.5)	606,895(44.6)	407,261(29.9)	1,360,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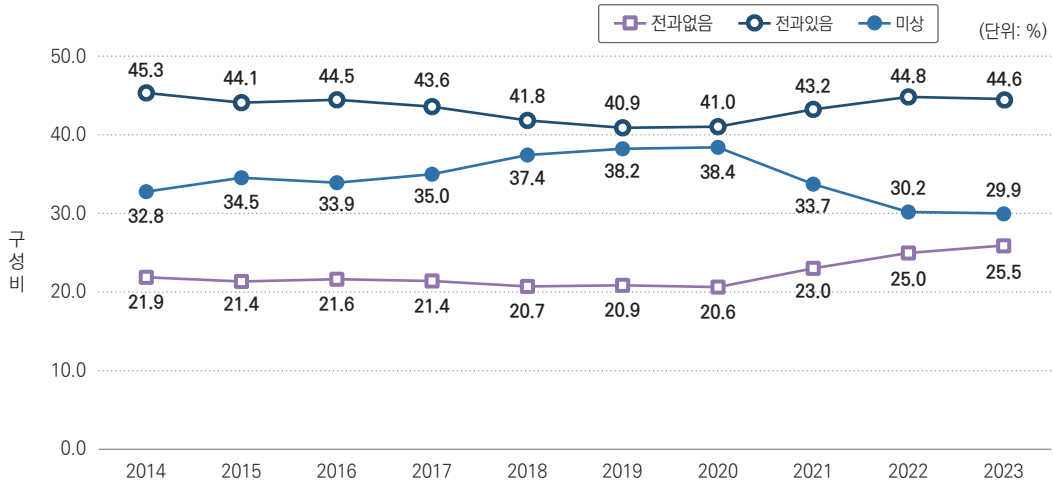


그림 22 전체범죄의 전과 여부별 비율 추이(2014년~2023년)

- 2023년 검거된 재산범죄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4.9%로 지난 10년간 2.4%p 증가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3.4%로 지난 10년간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6.9%p 감소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31.6%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3년 검거된 강력범죄(흉악)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35.8%로 지난 10년간 16.5%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6.9%로 지난 10년간 2.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13.8%p 증가하여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27.3%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3년 검거된 강력범죄(폭력)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47.2%로 지난 10년간 1.2%p 감소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23.0%로 지난 10년간 3.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2.2%p 감소하여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29.8%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2023년 검거된 교통범죄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전체의 55.1%로 지난 10년간 7.0%p 증가하였고, 전과가 없는 초범자는 32.2%로 지난 10년간 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과가 미상인 범죄자의 지난 10년간 구성비가 13.2%p 감소한 가운데, 전체범죄자 대비 비중이 12.7%를 차지함에 따라,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구성비의 증감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23 주요 범죄군별 전과 여부별 비율 추이(2014년~2023년)

(단위 :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전과 없음	전과 있음	미상
2014	19.0	42.6	38.5	34.2	52.3	13.5	19.6	48.3	32.1	26.0	48.0	26.0
2015	19.5	42.7	37.8	34.9	50.5	14.6	19.4	46.6	34.0	24.5	46.5	29.0
2016	20.0	42.9	37.1	35.3	49.1	15.6	19.1	45.4	35.5	23.2	46.7	30.0
2017	20.1	43.0	36.9	35.8	46.3	17.9	19.0	44.1	36.9	23.6	46.3	30.2
2018	19.1	42.2	38.7	33.9	44.5	21.5	18.9	43.5	37.6	23.4	43.8	32.8
2019	19.9	42.3	37.7	33.8	43.6	22.6	19.1	43.7	37.2	22.6	40.2	37.2
2020	19.5	42.6	37.9	32.2	43.8	24.0	18.9	44.6	36.6	22.0	40.6	37.4
2021	22.3	46.2	31.6	37.7	41.1	21.1	21.8	47.8	30.4	23.5	42.4	34.1
2022	22.5	45.0	32.5	39.2	36.3	24.5	22.1	47.8	30.1	30.6	53.9	15.4
2023	23.4	44.9	31.6	36.9	35.8	27.3	23.0	47.2	29.8	32.2	55.1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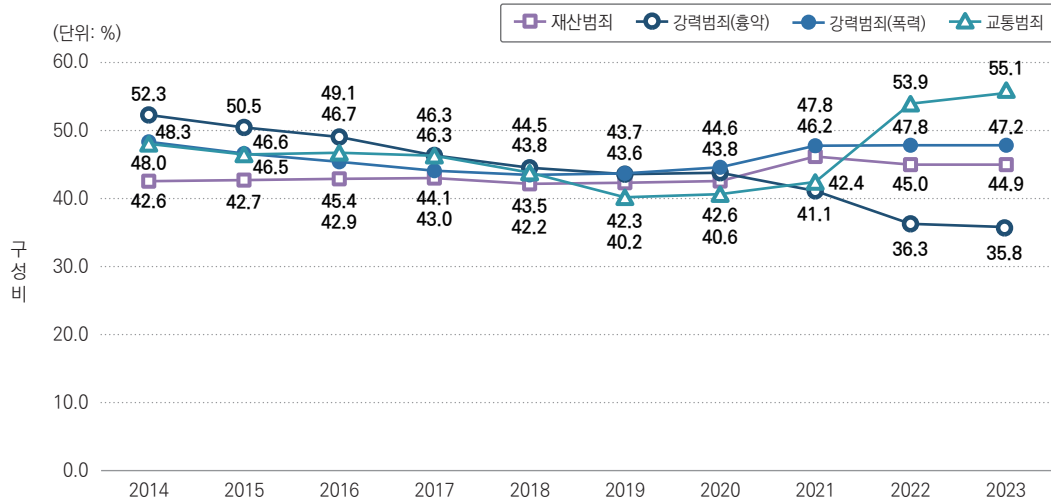


그림 23 주요 범죄군별 전자자료 비율 추이(2014년~2023년)